<특집: 국내 산시장 전망>

“ 산, 악화(부생)가 양화를 구축한다 ”

■수급 및 가격동향
■황산 ■질산
■인산 ■염산 ■불산

국내 산제품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생산기업들의 판매경쟁이 갈수록 치열,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산제품 시장은 제품 차별화가 무의미한 실정이고, 가격이 구매결정의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가격이 워낙 저가이기 때문에 운송비 및 인건비 등 물류비의 차지비중이 높아 지역별 시장분할 등을 통한 상호 공조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살깍기식의 치열한 판매전보다는 기업간 자율조정에 따른 판매전략적 차원에서의 그같은 시장 조정은 일면 적극 권장할만 하겠으나, 그로 인해 담합이 유도되고 지역내 독점공급으로 인한 횡포가 자행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황산은 제련사들의 부생 황산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데,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출가에 비해 내수가가 높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가칭「한국황산주식회사」설립 · 논의까지 불러 일으켜 문제시되고 있다.
질산은 동부 · 한국화약 등 신규 참여기업들의 가동률이 20%선에 머물고 있어 공급과잉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염산과 불산도 기업간 과당경쟁이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파행적인 거래양상마저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화학산업이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만 석유화학 · 정밀화학 · 소재 등 한국 화학산업이 원활히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국내 산제품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주력 생산기업과 부생기업, 생산자와 수요자 그 어느 부문도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에 실패, 오직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저가공급과 독과점 횡포가 양립하는 무질서 그 자체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산제품 생산 · 수요기업들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자구책 마련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때이다.

<화학저널 1992/12/15>